

## 1.3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의 개요

### 가. 수립원칙

- 도시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간구조, 교통체계, 환경의 보전과 관리, 에너지 및 공원·녹지 등 도시계획 각 부문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수립
-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형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한계자원인 토지, 화석연료 등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
- 태양력, 풍력,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분석·반영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 수립
-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하여 지역의 지리적, 사회·경제여건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며,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계획의 수립 여부 및 계획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수립

### 나.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적용 내용

-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장래예측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, 교통체계, 기반시설, 도심 및 주거환경, 환경보전과 관리, 환경친화적·에너지 효율적 개발, 대기환경 및 수환경의 보전, 폐기물, 에너지, 공원·녹지, 방재 및 안전, 경제·산업·사회·문화의 개발 및 진흥 등의 각 부문별 계획이 포함

## 2. 현황 및 여건변화

### 가. 온실가스 배출 현황

#### ■ 온실가스 배출 증가

- 2013년 현재 광양시의 대기환경은 아황산가스 0.006ppm, 일산화탄소 0.4ppm, 이산화질소 0.018ppm, 미세먼지(PM-10) 37 $\mu\text{g}/\text{m}^3$ , 오존 0.032ppm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
- 최근 아황산가스는 0.007ppm에서 0.006ppm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이산화질소는 0.015ppm에서 0.018ppm으로 다소 증가하였음
- 오존은 0.023ppm에서 0.032ppm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

#### 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여건 형성 미흡

- 온실가스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부문에 수송, 에너지산업, 가정 및 상업 등에 소요되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체에너지의 활용이 시급하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이 미약한 실정
- 한편 화석에너지의 사용이 근본적으로 감축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체계 등에 대한 여건도 미흡한 실정

## 나. 대내외 여건

### ■ 기후변화 위기의 심화

-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지속
  - 개도국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전세계적인 에너지사용 증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 증가 전망
-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피해 확산
  - 전세계적으로 기후·환경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 횟수와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  - 호우·폭염 등 이상기온 빈발, 해수면 상승, 자연생태계 급변 등 한반도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심화

### ■ 에너지 문제의 경제적·환경적 의의 증대

- 세계 에너지 소비 지속 증가 전망
  - 세계인구의 증가 및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이 에너지 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
- 에너지 가격의 상승 추세 지속
  - '95년 이후 원유, 석탄,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,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 예상
- 원전 및 재생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증대
  -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세계적으로 탈(脫)원전 흐름 시작
  - 세계경제 위축과 태양광·풍력 부품 공급과잉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진행
- 우리경제의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적 시스템 지속
  - 철강, 석유화학,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증가 및 냉난방 수요 급증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 증가
  - 석탄, 석유,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83% 수준

### ■ 창조경제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

-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한 창의성 기반의 경제·산업 생태계 부상
  - 주요 선진국은 새로운 시장·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·ICT, 문화·예술 등 자국의 강점을 활용한 창조산업을 집중 육성
  - 지속적으로 성장(연평균 14%)하고 있는 ICT 기반 산업융합시장 중에서 친환경·신에너지 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
- 녹색산업 육성에 기반한 경제전략 수립 국제적 확대 추세
  - 최근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 등 주요국은 녹색산업을 경제회복 및 성장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선택

○ 산업구조 변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

- 에너지·자원집약적인 업종에 기초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
- 노동집약적 산업('60~'70년대)에서 자본집약적 산업('80~'90년대)를 거쳐 기술·지식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필요

○ 新성장전략 패러다임으로 '창조경제' 부상

- 경제성장을 하락, 중산층 지위 하락, 경제양극화 심화 등 위기극복을 위해 과학기술 ICT 역량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전략 추진
- 기술간 융합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녹색기술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 중의 하나

■ 포용적 성장 패러다임의 확산

○ 환경적·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'포용적 녹색성장' 개념 부각

- 환경·경제·사회의 조화로운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환경보호와 더불어 사회적 통합 및 형평성 제고 추구
- 환경 및 사회 측면 이슈가 지역·국가별 비전 및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등에 핵심적 내용으로 반영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서의 '녹색성장'</li> <li>· 생산과 소비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의 조화를 추구</li> </ul>
---	-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중요 전략수단으로서의 '녹색경제'</li> <li>· 환경·경제·사회적 측면 간 불균형성을 보완함으로써 포용적 녹색성장 지향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경제적 성장 및 발전을 육성하고 인류 복지 및 후생에 기반이 되는 자연자원과 환경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'녹색성장'</li> <li>·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투자혁신 및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도모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환경리스크와 생태적 영향을 저감시킴으로써 인류 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'녹색경제'</li> <li>· 저탄소 경제성장, 효율적 자원활용, 사회적 포용성 달성</li> </ul>

( 그림 III- 79 ) 녹색성장 개념의 변화

○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

-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연생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

○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대

- 2000년 중반 이후 소득양극화 심화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여건 악화
- 폭염,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취약계층 및 환경서비스 사각지대 존재